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식품트렌드 전망

뉴욕지사

개성 넘치는 푸드 트렌드 예측

- 리서치 전문기관인 Mintel은 최근 식품업체들이 출시한 신제품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2018 여름 미국에서 유행할 식품트렌드'를 예측해 발표했다.
- Mintel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 대표적인 미국 식품트렌드는 건강함과 다양한 맛을 동시에 겨냥한 탄산수와 이국적인 맛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류, 저칼로리로 달콤한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맛을 첨가한 탄산수(Flavored Sparkling Water)

- 미국 내 탄산수 판매량은 지난 5년간 42% 증가했고, 미국인들은 매년 약 1억 7천만 갤런(6억 4,352만 리터)의 탄산수를 마시고 있다. 같은 기간 탄산이 함유된 소다의 소비량이 18% 이상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미국 정부의 soda세 부과와 더불어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 증가로 기능성 음료 및 탄산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건강한 식습관과 이국적인 풍미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달지 않고 다양한 맛을 내는 탄산수 제품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Mintel은 당도가 함유된 레모네이드보다 천연 향이 첨가된 탄산수제품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내 인기 있는 향이 첨가된 스파클링 워터 종류



Le Croix



Poland Spring



Perrier



VOSS



San Pellegrino



Sparkling Ice

② 술과 어울리는 스낵(Bold Snacks)

- NPD Group에 따르면 미국 내 스낵 시장은 2024년까지 1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월드컵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존 스낵보다 이국적이고 강렬한 맛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미국 소비자 중 36%는 새로운 맛의 스낵 구매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켈로그사의 프링글스 브랜드는 멕시코 치즈맛, 살사맛, 이탈리아 치즈맛, 매운 칠리 라임맛 등 강렬하고 자극적인 다양한 스낵을 출시했다.

③ 저칼로리 아이스크림(Low-calorie Ice Cream)

- 미국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전세계 아이스크림시장은 2025년도까지 연평균 4.1%의 성장률로 788억 달러(88조 196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켈로그사의 프링글스, 헤일로탑 크리머리의 저설탕, 저칼로리, 고단백질 아이스크림



헤일로탑 크리머리와 타사 아이스크림 영양분석표 (1/2 컵당 함유량)

	헤일로탑	하겐다즈	벤 & 제리스
칼로리(Kcal)	70	250	250
단백질(g)	5	4	4
지방(g)	2	17	16
설탕(g)	6	20	20

- 미국 제과기업인 헤일로탑 크리머리(HaloTop Creamery)는 소비트렌드에 맞춘 저설탕·저칼로리·고단백질의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 제품은 2017년 미국 시장에서 네슬레와 유니레버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아이스크림에 등극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7년 세상을 놀라게 한 25가지 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특색있는 맛으로 어필

- 미국 소비자들은 과일의 맛이나 천연향이 들어가 있지만 설탕은 배제된 탄산수를 원하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한국산 배·한라봉·포도·딸기·사과 추출물을 첨가한 탄산수를 개발하고 천연재료 사용을 강조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또한 맥주와 어울리는 스낵으로 고추장맛, 불닭맛의 매운맛 스낵류 등 한국 특유의 매운맛을 미국 현지 트렌드에 맞춰 개발한다면 식품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www.fooddive.com (2018.6.4), pepsicopartners.com
Food Business News, www.foodbusinessnews.net (2018.6.14)
www.mintel.com (2018.6.12.)
biz.chosun.com(2018.6.27)